

# 에베소서 강해

김윤규 목사

I. 기록 연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A.D 61/62 년 경) 후에 골로새서의 수신자들과 비슷한 환경(혼합 종교) 가운데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A.D. 60년대 초(61/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II. 에베소서의 큰 구조

1:1-2 인사

1:3-14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찬양

1:15-19 에베소서 수신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1)

1:20-2:10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2:11-2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3:1-21 에베소서 수신자들을 향한 새로운 사도 바울의 기도 및 송영 (2)

4:1-16 교회의 통일을 위한 권면

4:17-6:20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 권면들

6:21-24: 끝 인사

## III. 인사 (엡 1:1-2)

### 1. 사도 바울의 인사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1.1 발신자: 사도 바울

1.1.1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의 저작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 절과 골로새서 1:2 절과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χάρις ὑμῖν καὶ εἰρήνη)이란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

1.1.2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ἐγὼ Παῦλος)이란 표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저작권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데(고후 10:1; 갈 5:2; 골 1:23; 살전 2:18; 빌 1:9), 에베소서 3:1 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 1.1.3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 장부터 **1 인칭 시제**를 사용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 1.1.4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1 절과 4:1 절에서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ὁ δέσμιος τοῦ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ὁ δέσμιος ἐν κυρίῳ)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 1.1.5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 신학적 논증이 1:1-4:16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실천적 삶의 부분을 4:17-6:20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끝 인사가 6:21-24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구조에서 신학적인 논증(롬 1-8 장)을 설명하고, 참된 이스라엘을 설명(롬 9-11 장)하고 난 후에 실천적 삶의 부분을 언급(롬 12-15)하고, 끝 인사(롬 16 장)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 1.1.6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학 사상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동일합니다.  
e.g., 엡 2:18: 이는 그(Jesus)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롬 5:1-2; 롬 5:9-10; 롬 8:15-16; 갈 4:6  
e.g.,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롬 15:13; 롬 13:13; 고전 5:11; 고전 6:10; 갈 5:22-23  
e.g.,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롬 3:24; 갈 3:13; 골 1:14; 딤후 2:14
- 1.2 수신자: “성도들” or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  
성도들은 거룩한(ἅγιος) 자들입니다.  
“성도들”로 번역되어진 거룩(ἅγιος)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섬김에 헌신되어지고 바쳐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헌신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πιστός)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가치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e.g., 바나바 행 11:24)
- 1.3 사도 바울의 축복 (2)  
참된 은혜(χάρις)와 평강(εἰρήνη)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후 1:2; 골 1:2)